

‘지구의 허파’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가속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다.

지난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벌목 등으로 파괴된 아마존 열대우림은 8천200ha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평균 50ha 정도의 열대우림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열대우림 파괴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5일 열대우림 파괴 면적은 축구 경기장 7천 개 넓이에 해당하는 6천880ha였다. 시간당 19ha의 열대우림이 사라졌다는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파괴 면적이 배 이상 늘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7월까지 열대우림 파괴 면적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 최대 기록은 2017년 8월~2018년 7월의 2만200ha였다.

환경 전문가들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환경보호보다는 개발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가속하는 주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등 남미 8개국에 걸쳐 있으며 전체 넓이는 750만km²에 달한다.

아마존 열대우림에는 지구 생물 종의 3분의 1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루 안데스 지역에서 시작해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을 가로질러 브라질 대서양 연안까지 이어지는 하천의 길이는 총 6천900km다.

한국인, 영국 자동입국심사 적용

영국 입국 한국인들에게 자동입국심사 제도가 적용돼 대기시간이 크게 줄었다

지난 21일 ‘연합뉴스’가 주영 한국대사관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전날부터 런던 히스로와 게트워 공항, 유로스타역을 포함해 관련 부스가 설치된 전역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자동입국심사(E-passport gate) 제도를 적용했다.

시행 첫날 대한항공을 통해 히스로 공항에 입국한 한국인 300여 명이 20여분 만에 입국심사를 완료했다고 주영 한국대사관 측은 전했다.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영국에 도착한 290여명의 한국인 역시 입국심사 15분 만에 절차를 마쳤다.

그동안 영국은 자국민과 유럽연합(EU) 및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 주민만 자동입국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이번 자동입국심사 제도 확대로 한국 국적의 전자여권 소지자로 만 18세 이상이면 사전등록 없이 입국장 내 위치한 자동입국심사 부스를 이용해 입국할 수 있다. 별도 이민관 직원과의 대면 인터뷰나 입국 서류(landing card) 작성 없이 여권 스캔, 안면인식만으로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다만 만 12~17세는 성인 동반 시에만 자동입국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노동 허가서 소지자, 스포츠·예술 후원 증명서 소지자 등 사증 발급이 요구되는 입국자는 영국 국민이 이용하는 내국민 심사라인에서 이민관 직원과 대면 인터뷰를 한 뒤 입국 도장을 받아야 한다.

2017년 영국 내 외국인 여행객 중 한국인 수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7위를 차지했다.

“중국 내 탈북 여성 성착취 심각”

많은 북한 여성이 중국에서 성노예로 팔리고 있으며 매매 규모는 연간 1억 달러를 웃돈다는 민간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21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영국의 민간 단체 코리아미래계획(Korea Future Initiative)은 전날 중국 내 탈북여성들의 실태 조사 보고서를 영국 하원에 제출했다.

‘성노예: 중국 내 북한 여성과 소녀들의 매매, 사이버섹스, 강제결혼(Sex Slaves: The Prostitution, Cybersex & Forced Marriage of North Korean Women & Girls in Chin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지난 2년간 중국·남한에 거주하는 인신매매 피해자 45명, 연구자, 중국인, 구출단체 관계자들을 면담해 종합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만 명의 북한 여성·소녀들이 중국에서 성매매 관련 거래로 착취와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으며 성노예 매매 시장 규모는 1억500만달러에 이른다. 성매매 피해자들은 30위안(약 5달러)에 매춘을 강요당하기도 하며 강제 결혼의 경우 1,000위안에 팔려 가는 여성도 있다.

보고서는 피해 여성들은 나이가 12~29세이며 많은 여성이 한 차례 이상 매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9세 소녀가 인터넷 음란 채팅에 동원되고 14세 소녀가 2만4,000위안에 36세 남성에게 팔린 충격적인 증언도 보고서는 담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 여성 인신매매를 우려하며 북한과 중국에 대책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북한·중국 모두 이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부에나팍 / 플러튼 / 라하브라 / 애나하임

40년 경력의 주인이 직접 수리하는

한미 자동차 바디/수리

Hanmi Auto Enterprise Collision & Repair



모든 보험회사 취급



저렴한 가격 / 정확한 수리

- 무료 방문 견적
- 자동차 수리시 Pick up & Delivery
- Towing & Rent Car 알선
- 보험 수리 전문
- 노련한 바디맨의 완벽한 수리
- 최신 머신에 의한 Color Match
- FREE ESTIMATE

24시간 Cell **714.851.7556** 4355 Artesia Ave. #D, Fullerton, CA 92833
항시대기 **714.680.9273** Dale + Artesia 플러튼 공항 뒤쪽(할주로)